

'20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업자명 : (주)지에스홈쇼핑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업자	
20.05.29	서면회의	10/10	5	-

- 시청자위원 불참자 : -
- 방송사 주요참석자 : 대외/미디어 부문장, 대외협력팀장, 심의팀장 등 5人
-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의거 대면 접촉 최소화 위해 서면회의로 대체 진행하였습니다.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심의규정	합 계
0	1	0	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 계
건 수	1	0	0	0

다.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건	1건	
방송 프로그램	<p>그릇세트, 커트리리 세트 등 식기류의 수량 표기 방법이 혼란스러움.</p> <p>유통업계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긴 하나 추가적으로 표시방법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구매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가락 한 개를 각 pc로 카운트하는 것은 년센스임 - 피스를 표시하는 것은 세트 구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구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움을 주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세트에서는 ‘세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불확실한 표현은 삼가야함. 개수나 표현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 및 표현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예 젓가락 4pcs 가 아닌 4세트 구성 등으로 표시할 필요 있어 보임 - 상세 설명 등으로 구분을 잘 해준다면 그대로 써도 무방해 보임 - 소비자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표기 방법이기예 세트와 PCs를 구분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로 보임 - 소비자 입장에서의 실제 활용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인 소지를 줄일수 있을거 같음 - 그릇, 밀폐용기 또는 젓가락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해당 물건이 “몇 인용”인지 등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생각할 것인데, 이로 인해 “p”앞에 있는 숫자의 수량을 표시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홈쇼핑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기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수”라고 할 수 있는 “4인 세트” 또는 “19중”까지만 표시하는 	<p>수저세트, 그릇세트 등의 표기방법은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PCS 혹은 몇인조, 세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p> <p>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여 제작부서, 심의부서, 품질관리 부서와 협의한 결과. 불분명한 수량 표기방법은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명확하고 직관적인 표기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릇 등 세트는 00인조, 0인용, 수저세트 등은 0별로 표기방법 통일하여 개선 완료하였음.</p> <p><20년 6월 조치완료></p>	3월

	<p>것이 구매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광고 품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수저 세트의 경우에는 그냥 4인 세트로 표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밀폐용기의 경우에는 19종 세트 + 받침대 포함 등으로 밀폐용기가 몇 개인지를 표기하면서, 같이 제공되는 다른 품목이 몇 개인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사료됨 - 소비자들을 헛갈리게 하는 표기 방식이라고 생각됨. <p>PCS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 괄호하고(뚜껑 등 포함 개별 수량시)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p>		
--	--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 고
-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GS홈쇼핑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19. 09~ '21.08.)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옥경영	•現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現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보호단체	
부위원장	김정현	•現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現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박진용	•現 한국유통학회 차기 협회장 •現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유통학회	유통단체	
위원	최난설현	•現 유통법학회 이사 •現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단체	
위원	고경신	•前 CISCO 마케팅 총괄 상무 •前 아름다운가게 그린사업국 국장	아름다운가게	사회소외계층	
위원	최순옥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現 에델마을 사무국장	에델마을	사회소외계층	
위원	최윤정	•前 SBS 프로덕션 제작국 프로듀서 •現 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정윤경	•現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전문위원 •現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보호단체	
위원	정진환	•고려대 법학과 학사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윤주호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송 프로그램	<p>수입제품, 완제품 수입품, OEM 제조 방식의 수입제품 등 다양한 생산 관련 표현으로 수입상품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 방법에 따라 시청자 오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직수입 완제품’이라는 표현은 OEM방식 생산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수입한 미국에서 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국 직수입 완제품’ 이나 ”중국 직수입 완제품“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할 수 있음. <p>”미국 직수입 제품“이나 ”중국 완제품“이 적절한 표현이므로, 제품에 "Manufactured in China“라고 표시하고 ”미국 직수입 제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직수입 완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제품 제조국을 따로 표기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요즘 이런 OEM 방식으로 제작이 많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제조국을 따로 궁금해함. 따라서 따로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궁극적으로 채널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함 - 시청자들이 ‘○○직수입완제품’이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해당제품의 OEM 생산 방식으로 인한 ‘중국산’ 표기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상품의 생산방식에 따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불필요한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으로 사료됨 - 생산자/제조국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보다 세밀하고 안전한 표기 	<p>전체적인 의미로는 사실이나 일부 생산환경에 따라 동일한 표현이 오인성이 있어보이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표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예정임.</p> <p>당사의 제작진, 심의부서, 품질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명확한 프로세스 및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 후 차기 회의 시 보고 드리겠음.</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방법으로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입장에서는 미국직수입 완제품이라 하면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국A사에서 중국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미국 브랜드 “OOOO” 제품 정도로만 표기를 하거나, “미국 OOO 완제품”이라는 점을 표기하고 싶다면, 직수입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중국 OEM”이라는 점을 같이 병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함. - “직수입 완제품”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 배송된 물건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임.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숙련된 노동력에 의해 제조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 제조된 국가는 다른 곳이고 (물론 원산지로 중국 등을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제조 국가를 명확하게 기재 또는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오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수입 완제품”이라는 표현 대신에 “미국 A사 제품” 또는 “미국 A사 제품(원산지: 중국)”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